

시끌벅적 e-스타

아하! 이런 방법이... 소심팬들의 소심한 복수



‘다 부쉬버릴 거야!’

청초한 이미지로 못 남성들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했던 인기배우 심은하, 복수의 화신 역할을 맡았던 한 드라마에서 이글 이글거리는 눈으로 매몰차게 내뿜었던 한마디 ‘다 부쉬버릴 거야.’

모든 걸 부쉬버릴 정도로 분노할 일도 많은 세상사. 하지만 화가 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복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소심한 사람들의 소심한 복수에 대해 다룬 동영상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흔한 방법, 먹는 걸로 복수하기.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동영상 제작자는 앉은 자리에서 컵라면 가져오라고 시키는 손님이 가장 싫었다. 그래서 선택한 복수 방법이 기준선 이상으로 몰 붓기였다.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맛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나뭇대로 예교있는 복수다. ‘미운’ 상사들 차 심부름 시킬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맘에 안든 상사 커피에 침 뱉기는 소심하지만 간편하게 통용되는 복수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받은 만큼 돌려주기다.

동영상에는 쓰레기통 수거지역 앞에 딱 하니 주차되어 있는 무개념 자동차가 등장한다.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해 쓰레기 수거를 마친 미화원들은 쓰레기통으로 차를 돌려쫓고 유유히 떠난다. 자업자득이다. 허를 찌르는 엽기 복수도 있다.

날 버리고 떠난 사람, 인기 연예인 변호하고 속이고 그 사람 변호를 인터넷에 공개한 이도 있다. 악덕 사채업자에게 공개 돈을 보내 주었던 한 채무자는 매일 매일 조금씩 돈을 보내면서 이름 대신 사채업자에게 할 말을 써서 보낸다. 어느 순간 사채업자의 통장은 복수상으로 가득찬 편지가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화장품 플러스 공합①

▷각질 제거제+보습 제품+화이트닝

아무리 좋은 보습 제품을 바르더라도 묵은 각질이 있다면 보습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다. 보습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각질 제거 기능이 있는 클렌징, 스크럽, 필링 에센스를 사용하면 보습 제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화이트닝 제품도 각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

▷레티놀 화장품+자외선 차단제

레티놀은 주름 개선과 피지 컨트롤에 효과가 좋지만 빛과 열에 불안정하다. 민감한 사람은 레티놀을 바른 뒤 햇빛을 받으면 광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 레티놀 제품은 밤에 이용하지만 자외선차단제와 병행하여 사용하면 태양광선에 의해 레티놀 성분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낮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오늘의 유머

■길 잃은 나그네
시골 외딴 집에 길을 잃은 남자가 찾아와 자고 가기를 간청하자 아름다운 주인 여자가 말했다. “실은 남편이 멀리 다니러 가서 나 혼자이기 어렵게 걸었습니다.”
남자의 애원에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남자는 자려고 자리에 누웠으나 미모의 여주인이 자꾸 생각나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주인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혼자 주무시기에 슬슬하시죠?”
남자가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며 대답했다. “네, 사실은 그- 그렇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럼 잘됐군요. 길 잃은 노인이 또 한 분 왔어요.”

■오빠, 아저씨, 할배의 차이
노래방에서 책을 뒤에서부터 찾으면 오빠, 앞에서부터 찾으면 아저씨, 찾아 달라고 하면 할배.
덥다고 땀만 흘리면 오빠, 바지 걸으면 아저씨, 내복 벗으면 할배.
목욕탕 거울을 보며 가슴에 힘주면 오빠, 배에 힘주면 아저씨, 코털 뽑으면 할배.
블루스 춤 때 머리 감으면 오빠, 윈손 올리면 아저씨, 발 땀하면 할배.
식당에서 물수건으로 손 닦으면 오빠, 얼굴 닦으면 아저씨, 코 풀면 할배.
배낭 여행가면 오빠, 물자만 관광가면 아저씨, 효도 관광 가면 할배.
근사한 식당 많이 알면 오빠, 맛있는 식당 많이 알면 아저씨, 과부 주인 많이 알면 할배.

■만약에
한 젊은 남자가 보석가게에 가서 여자친구에게 줄 값비싼 목걸이를 하나 샀다.

“목걸이에 선물 받은 분의 이름을 새겨 드릴까요?” 보석가게 주인이 물었다.
그러자 잠시 생각을 하던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다. “그냥 ‘나의 하나뿐인 애인에게’라고만 새겨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 다른 여자에게 다시 선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공처기의 전화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공처기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기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집에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대로 곧 전화를 걸겠습니다.”

■이별의 이름
아버지가 사람에게 실패한 아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애야, 시간을 믿어라.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여자는 완전히 잊게 될 거야.”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아니 왜?”
“내가 그에게 사준 선물은 모두 카드 할부로 끊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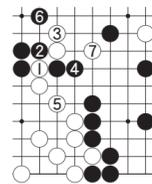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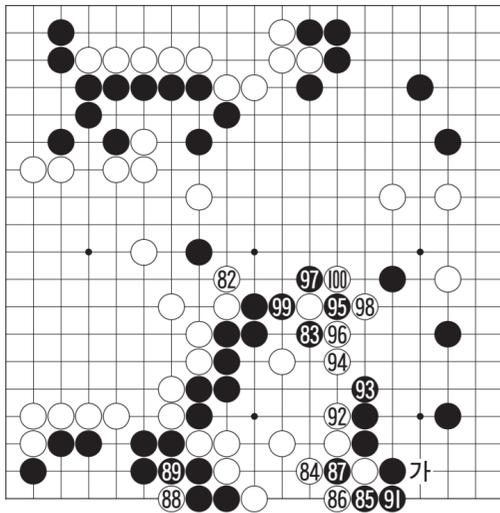
■힘의 원천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녀요?”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라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잊게 되거든.”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였어요?”
“그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제17회 光日盃

까다로운 역습

개인전 준결승 6보 (82~100)

白 김영수 5단 黑 방재혁 5단
(전남교사회) (창이유통)



참고도

백 82는 형세가 유리하다고 본 안전책, 이 수로는 씩어서 잡으러 갈 수도 있지만 먼저 손해를 보는 모험을 피한 것이다. 과연 김영수 5단의 우려대로 방재혁 5단이 흑 83

니 약점이 많고 그렇다고 물러서기도 마땅치 않다. 김영수 5단은 고민 끝에 84로 호구처 자체 삶과 ‘가로’ 깨달이는 수를 노린다. 방재혁 5단은 내친 김에 85로 단수해 패를 결했었는데 이 수로는 96 자리에 늘어 중양을 보강하고 있다. 결국 흑 91로 굴복하게 돼 모처럼 돌아온 주도권을 놓치게 된 것이 아쉽다.

백 94는 약한 수. 이 수로는 ‘참고도’의 1로 끊고 3으로 다음 5로 확실하게 살아두고 있다. 100으로 돌아 난전의 양상이다.

〈오규철 9단·본보 비독 해설위원〉

대한주변경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4일(음 8월 5일 丁未)

36년생 아내가 힘이 드니 아내를 살펴봐라. 48년생 직장과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0년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이니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72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84년생 수하인과의 금전거래는 불합격하게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21, 32

37년생 양보 받기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좋은 날이 된다. 49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61년생 편안한 하루가 될 것이니 마음 놓고 지내라. 73년생 술이 가뿐 하루로다. 85년생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성의껏 협조하라. 행운의 숫자: 18, 35

38년생 할 일은 분명하게 처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 50년생 오전은 흥하나 오후는 길하다. 62년생 옛 일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74년생 상황이 변하니 주의 깊게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11, 41

39년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먼 곳에서는 좋은 소식이 온다. 51년생 도움을 주면 답은 그 이상이다. 63년생 험리 길도 한결같아 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75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하라. 행운의 숫자: 20, 38

40년생 나이는 숫자일 뿐 용감하게 진행하라. 52년생 뒤로 주고 앞으로 받으니 활동을 많이 하라. 64년생 희망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에게 온다. 76년생 흐린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12, 30

41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고 마음은 편안하리라. 53년생 멀리서 친구가 오니 즐겨우려라. 65년생 바리엔 일이 꼭 이루어진다. 77년생 뜻밖의 재물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22, 34

42년생 추진하는 일을 꼼꼼히 점검하라. 54년생 부부간에 다정한 시간을 마련하라. 66년생 자녀의 고민을 먼저 생각해봐라. 78년생 주변의 이웃과 친척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 해봐라. 행운의 숫자: 02, 31

43년생 자기의 지위는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하라. 55년생 친척의 보증을 서지 마라. 흥한일이 생길라. 67년생 출구로 노를划하니 즐겁지만 하다. 79년생 오늘은 교통사고를 주의하고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을 마라. 행운의 숫자: 23, 42

44년생 오후에 화재주의를 하라. 56년생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주어라. 68년생 불의의 어려움이 오지만 심성의 양정을 지키면 대고는 없다. 80년생 속 타는 일이 생기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14, 28

45년생 사소한 말이 시비가 될 수도 있다. 57년생 오늘은 문단속을 잘해야 하리라. 69년생 목은 고달프고 마음은 우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81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문제는 없다. 행운의 숫자: 24, 44

46년생 귀한 물건이 안보일 수도 있으니 문단속을 잘해야. 58년생 남과 말다툼은 시비로 비화되니 절대로 피해야 한다. 70년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뒤말이 없다. 82년생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7, 16

47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수도 있다. 기분을 미미하다. 59년생 숙련숙제로 추진하면 대재가 생긴다. 71년생 외려내려 내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 83년생 중심을 잡으면 거사가 편안하리라. 행운의 숫자: 01, 43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p>굿모닝 잉글리쉬 <1139></p> <p>I forgot all about it. 깜박 잊었네요.</p> <p>A: Hello. B: Hi, this is Dr. Lin's office. I'm calling to remind you about your appointment. A: Oh, I forgot all about it. B: I thought so. Your appointment was half an hour ago.</p> <p>A: 여보세요? B: 안녕하세요. 린즈 클리닉입니다. 제가 전화한 이유는, 선생님께서 예약하신 것, 상기시켜 드리려고요. A: 오우, 깜박 잊었네요. B: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선생님의 약속은 30분 전이었습니다.</p> <p>* appointment = 예약, 약속 * forgot all about it = 그 일에 대해 완전히 깜박 있다. * I'm calling to ~ = 제가 전화한 이유는, * 선생님께서 물어 가고 싶어하는지 알고 싶어 전화 드렸습니다. = I'm calling to see if you want to go to the mall.</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1139></p> <p>お金でも出てくるの? 돈이라도 나오는 거야?</p> <p>A: 'お手洗(てあらい)って'聞くと、ただ手を洗うところのようだけど、違(ちが)うんだね。 B: そう。日本では「トイレ」という意味だから、「おつり」の出る「トイレ」って分かる。 A: 何それ? お金でも出てくるの? B: いや、そうじゃないよ。【くみとり式トイレ】ってことさ。</p> <p>A: '오테라이'라고 들으면 그냥 손을 씻는 곳 같은데, 다르구나. B: 그래, 일본에서는 '화장실'이라고 하는 의미니까. '거스름돈이 나오는 화장실'이라고 알아? A: 그게 뭐야? 돈이라도 나오는 거야? B: 아니, 그렇지 않아. '푸세식 화장실, 재래식'이라는 거야.</p> <p>聞(き)く: 듣다 ~のよう: ~와 같은 おつり: 잔돈, 거스름돈</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216></p> <p>明天上午几点会议? 내일 오전 몇시에 회의가 있습니까?</p> <p>A: 明天上午几点会议? míngtiān shàngwǔ jǐdiǎn huìyì 명타옌 상우 지디엔 후이이 B: 九点半会议。 jiǔdiǎn bàn huìyì 구우디엔 반 후이이 A: 下午呢? xiàwǔ ne 하오 네 B: 一点半会议。 yídiǎn bàn huìyì 이디엔 반 후이이</p> <p>A: 내일 오전 몇 시에 회의가 있습니까? B: 오전 9시 반에 회의가 있습니다. A: 오후는요? B: 아직 반해 있습니다.</p> <p>会议 [huìyì] 회의 上午 [shàngwǔ] 오전 下午 [xiàwǔ] 오후</p> <p><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 383-1605</p>	<p>한자 이야기 <856></p> <p>一以貫之(일이관지) 한 일, 써 이, 꿰 관, 어조사 지</p> <p>일이관지(一以貫之)는 본래 하나의 이치로서 모든 일을 꿰뚫는다는 뜻이지만, 현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다'는 의미로 사용하여 '초지일관(初志一貫)' 또는 '일관(一貫)되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p> <p>이 말은 공자가 스스로의 사상과 행동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사용하였다. 먼저 '위령공(衛靈公)'편에서 제자인 자공(子貢)에게 "사(賜)야, 너는 내가 많이 배우고 그것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자공이 "그렇습니다. 아닌가요?"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공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로 꿰 뚫는다."라고 하였다. 한편, '이인편(里仁篇)'을 보면 공자는 같은 말을 증자(曾子)에게도 하였다. "삼(參)야, 나의 도는 하나로써 꿰었느냐."라고 말하자, 증자는 곧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네"하고 대답했다.孔子께서 나가서 문인(門人)들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자, 증자는 "선생님의 말씀은 충(忠)과 서(恕)일 뿐이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일관지도(一貫之道)'로서 인(仁)을 의미하는 것이다. 충(忠)은 남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서(恕)는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이해하는 것이다.</p> <p><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